『영미연구』
제68집 (2026): 1-18
http://doi.org/10.25093/ibas.2026.68.1

사라 룰의 『깨끗한 집』에 나타난 젠더화된 공간과 여성의 소외

고 현 주
단독 / 독립연구자

[국문초록]

본 연구는 사라 룰의 『깨끗한 집』에서 '청결'과 '집'의 관계에 주목하여, 여성 인물들의 불안과 상실이 공간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변화하는지를 살펴본다. 작품 속 집은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청결과 질서를 유지하려는 욕망이 여성들의 감정과 관계를 규율하고, 젠더화 된 가사노동과 돌봄의 부담, 계급적 불균형을 가시화하는 병리적 공간으로 기능한다. 특히 레인의 청결에 대한 집착과 마틸드의 청소 거부 및 농담은 이러한 공간 질서에 순응하고 균열을 일으키는 상반된 수행으로 나타난다. 극이 진행되면서 청결과 통제의 공간은 질병과 상실, 더러움과 죽음의 흔적을 받아들이는 공간으로 변화하며, 이러한 변화는 여성 인물들의 관계가 재구성되는 과정과 맞물린다. 특히 레인이 추구하는 '청결'은 단순한 위생 상태가 아니라 불안과 감정적 균열을 제거하고 통제하려는 공간적 질서로 기능하며, 마틸드의 청소 거부와 농담, 아나의 질병과 죽음은 이러한 질서에 균열을 일으키며 '깨끗한 집'의 의미를 변화시킨다. 나아가 룰은 완전한 치유나 질서의 회복을 제시하기보다, 더러움과 질병, 상실과 죽음의 흔적을 제거하지 않은 채 타인의 취약성 곁에 머무르는 여성들의 모습을 통해, 불완전한 연대와 치유의 가능성을 섬세하게 포착한다.

주제어: 사라 룰, 지리병리학, 돌봄, 『깨끗한 집』, 가정 공간, 정동

1. 들어가며

사라 룰(Sarah Ruhl)의 연극『깨끗한 집』(*The Clean House*, 2004)은 '누가 청소하고 누가 돌보는가' 라는 일상적인 질문에서 출발하여 가사노동에 내재한 젠더와 계급의 문제를 드러낸다. 여성의 자기실현과 자기희생의 긴장은 페미니즘이 오랫동안 제기해 온 문제이기도 하다. 캐럴 길리건(Carol Gilligan)은 여성의 권리를 둘러싼 역사적 논의를 검토하면서, 엘리자베스 케이디 스탠턴(Elizabeth Cady Stanton)이 "자기발전은 자기희생보다 더 높은 의무"(SELF-DEVELOPMENT IS A HIGHER DUTY THAN SELF-SACRIFICE)라고 선언하고 여성의 자기발전을 가장 크게 방해하는 것이 자기희생이라고 주장한 대목을 환기한다(Gilligan 172 재인용).『깨끗한 집』은 이러한 오래된 긴장을 전문직 여성의 사회적 성취와 가사노동의 계급적 분배라는 문제로 변형한다. 찰스(Charles)의 아내이자 자신 역시 의사인 레인(Lane)은 전문직 여성으로서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지만, 그녀가 가사노동에서 벗어난다고 해서 그 노동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청소는 브라질 출신 이주여성 마틸드(Matilde)에게 맡겨진다. 따라서 작품은 여성의 자기발전과 자기희생이라는 대립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어떤 여성이 가사노동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며 그 노동은 다시 누구에게 배분되는가라는 질문을 제기한다.

실제로 룰은 "계급이 우리 스스로 청소하고 매일 자신의 더러움을 돌보아야 할 의무에서 벗어나게 해주는가? 의과대학을 나왔다는 사실이 우리의 젠더를 초월하게 해주는가?"라고 묻는다(Listengarten and Rosenthal 173 재인용). 이 질문은 여성의 전문적 성취가 젠더화된 가사노동을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계급과 이주민의 지위에 따라 그 노동이 여성들 사이에서 다시 분배될 수 있음을 드러낸다. 따라서『깨끗한 집』에서 청소는 단순한 가사 행위가 아니라 젠더와 계급이 교차하는 노동이며, '집'은 그러한 노동의 불균등한 분배와 여성 인물들의 불안, 상실, 저항이 가시화되는 공간으로 전환된다.

전통적 가정극(domestic drama)은 가족과 가정을 중심으로 일상적 관계와 갈등을

무대화하는 극적 전통으로, 집은 사적인 생활공간인 동시에 가족 구성원 사이의 권력 관계와 사회적 규범이 작동하는 장소로 기능해 왔다. 따라서 전통적 가정극의 집을 단순히 평온하고 안정된 공간으로 규정하기는 어렵다. 특히 근대 사실주의 가정극은 가정 내부의 갈등을 통해 결혼제도, 젠더 규범, 계급적 위계와 같은 사회적 모순을 드러냈다. 우나 초두리(Una Chaudhuri)가 언급한 "작고 평범한 사건들만 벌어지는 공간"(91)이라는 표현 역시 가정 공간의 정치적 의미가 부재했음을 뜻하기보다, 일상적 공간과 사건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극적 관습의 특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대 연극의 집은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억압과 불안이 새롭게 등장하는 장소라기보다, 가정 내부에 잠재된 갈등과 소외가 공간적 배치, 침묵, 신체적 수행을 통해 더욱 가시화되는 장소로 이해할 수 있다. 해롤드 핀터(Harold Pinter)나 샘 셰퍼드(Sam Shepard)의 희곡은 이러한 공간적 재현의 변화를 보여준다. 특히 핀터의 『생일파티』(*The Birthday Party*)의 도입부에서 반복되는 "거기 당신이에요?"(3)라는 호출과 그 사이에 삽입된 침묵은 일상적 거실 공간을 타자의 존재조차 확실히 확인할 수 없는 불안정한 장소로 전환시키며, 가정 내부의 소통 단절과 정서적 균열을 드러낸다.

이러한 점에서 집은 안정된 안식처라는 이상과 불안 및 소외가 축적되는 현실이 충돌하는 병리적 공간으로 재구성된다. 이러한 가정 공간의 불안정성은 사라 룰의 『깨끗한 집』에서 청결과 질서에 대한 욕망을 통해 새롭게 무대화된다. 룰은 집을 단순히 인물들의 불안과 소외가 드러나는 배경으로 제시하지 않고, 젠더화된 가사노동과 돌봄의 불균형이 여성들의 감정과 신체에 영향을 미치는 공간으로 형상화한다. 특히 청결을 유지하려는 레인의 강박과 청소를 거부하는 마틸드의 행위는 가정 공간에 내재한 권력관계와 정동적 갈등을 가시화한다. 또한 공간적 병리성은 『깨끗한 집』에서 청결의 가시성과 감정적 은폐 사이의 역설을 통해 구체화된다. 레인이 추구하는 청결은 단순한 위생 상태가 아니라, 가정 내부의 불안과 갈등을 외형적 질서로 통제하려는 시도로 나타난다. 그러나 정돈된 거실의 표면은 그 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가사노동과 여성 인물들의 감정적 고통까지 드러내지는 않는다. 오히려 집이 깨끗하게 보일수록 그 청결을 유지하는 노동의 불균등한 분배와 인물들 사이의 정서적 균열은 가려질

수 있다. 따라서 『깨끗한 집』에서 청결의 가시성은 가정 내부의 삶을 투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외형적 질서와 그 이면의 고통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을 부각하는 장치로 기능한다. 룰의 『깨끗한 집』에 대한 국내 연구는 주로 돌봄 윤리와 여성주의적 연극 미학의 관점에서 이루어져 왔다.

먼저 김영덕은 「취약성의 윤리와 돌봄: 사라 룰의 『깨끗한 집』」에서 이 작품을 인간의 취약성과 상호의존성에 주목하는 '돌봄 윤리'의 맥락에서 해석하며, 인물들이 서로의 결핍과 상처를 인식하고 돌봄의 관계를 형성해 가는 과정을 통해 작품의 관계적 윤리와 공동체적 가능성을 조명한다. 한편 최성희와 김지선은 「『깨끗한 집』의 희극적 카타르시스 연구」에서 룰의 희극적 전략과 여성 인물들의 경험을 중심으로 작품의 여성주의적 연극 미학과 정동적 전환의 가능성을 논의한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깨끗한 집』에 나타난 돌봄과 관계의 윤리, 그리고 룰의 여성주의적 연극 미학을 규명함으로써 작품을 여성의 경험과 관계성의 문제로 읽을 수 있는 중요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영미권 연구에서도 사라 룰의 희곡에 나타난 농담의 수행성과 무대공간의 변형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웬디 애런스(Wendy Arons)는 『현대 미국극: 2000-2009』(*Modern American Drama: Playwriting* 2000-2009)에 수록된 「사라 룰」("Sarah Ruhl")에서 마틸드의 농담과 인물의 이중 배역이 지닌 상징적 의미를 검토하는 한편, 레인의 거실이 병원과 발코니로 확장되는 무대 구성을 분석한다. 특히 아나의 발코니에서 버려진 사과가 레인의 거실과 삶에 혼란을 가져오는 장면을 통해, 중첩된 무대공간이 시간과 장소를 가로질러 인물들을 연결하고 그들의 내면을 연극적으로 형상화한다고 설명한다(Arons 176-77). 이러한 논의는 『깨끗한 집』의 공간적 특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토대를 제공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작품의 여성주의적 문제의식을 정동과 공간, 신체의 상호작용으로 확장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여성 인물들이 경험하는 불안, 강박, 우울, 상실이 '집'이라는 젠더화된 공간 속에서 어떻게 축적되고 신체화되는지, 그리고 이러한 경험이 농담과 돌봄의 수행을 통해 어떻게 변형되고 재구성되는지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깨끗한 집』의 집을 단순히 돌봄이 이루어지는 배경이 아니라,

청결과 질서를 유지하려는 욕망이 오히려 불안과 소외를 만들어내는 공간으로 재독해 한다. 나아가 청결과 질서의 균열이 인물들의 불안과 관계의 단절을 어떻게 드러내며, 마틸드의 농담과 여성들 사이의 돌봄이 기존의 공간 질서를 어떻게 교란하고 재구성하는지 살펴본다. 궁극적으로『깨끗한 집』에서 치유는 완벽하게 정돈된 상태로의 회복이 아니라, 더러움과 질병, 상실과 죽음을 배제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가능해진다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2. 병리적 공간과 여성의 정동적 수행

본 연구에서 정동(affect)은 개인의 내면에 고립된 심리적 상태가 아니라, 신체와 타자, 사회적 관계의 접촉 속에서 형성되고 작용하는 감정적 힘과 그 효과를 가리킨다. 사라 아메드(Sara Ahmed)는 감정을 개인의 내부에서 외부로 표출되는 사적인 경험으로만 이해하기보다, 신체와 타자 사이의 접촉과 사회적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것으로 설명한다(『감정의 문화정치학』 8-9). 이러한 관점에서 정동은 불안, 슬픔, 분노와 같은 개별 감정의 명칭에 한정되지 않으며, 감정이 신체의 움직임과 행위를 조직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변화시키는 과정까지 포함한다. 이러한 관계적 관점에 주목하여『깨끗한 집』의 청결과 가사노동, 농담과 돌봄을 여성 인물들의 감정이 공간 속에서 형성되고 변형되는 수행적 과정으로 분석한다. 따라서 레인의 청결 강박과 마틸드의 농담은 서로 다른 개인적 성향을 보여주는 데 그치지 않고, 젠더화된 가정 공간에서 불안과 상실이 신체적 행위로 나타나는 상이한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룰은『깨끗한 집』에서 일상적 청소노동과 돌봄, 가족 돌봄의 정서적 노동, 그리고 농담이라는 비상식적 퍼포먼스를 통해 구조적 억압과 내면의 고통을 네 여성 인물의 감각, 언어, 행동으로 실질화 한다. 레인은 “모든 것이 완벽해야만 견딜 수 있어요”(Ruhl 22)라고 말하며, 집안의 청결과 질서에 집착한다. 이 강박은 반복되는 집안 점검, 사소한 오염에 대한 불안, 신경질적 손동작으로 표출된다. 또한 레인은 “깨끗한

집은 나와 같아”(7)라고 말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집의 청결 상태와 동일시한다. 이때 집은 단순한 생활공간이 아니라 레인의 자아와 감정 상태가 투사된 공간으로 기능한다. 그녀에게 청결은 위생의 문제가 아니라 불안과 감정적 균열을 통제 가능한 질서로 봉합하려는 수행적 장치이다.

따라서 집의 오염이나 무질서는 단순한 생활의 불편함이 아니라, 자기 통제의 실패와 정체성의 균열로 이어진다. 프로이트는 『정신 병리학의 문제들』에서 불안신경증이 히스테리와 유사한 점을 신체 감각에서 나타나는 ‘전환’ 현상을 통해 설명한다(22). 즉, 레인의 불안은 내면의 긴장이 신체적 행동, 청결 강박, 감시, 통제 등으로 전환된 형태이며, 이는 사회적 억압이 몸을 통해 표출되는 신경증적 징후다. 이때 불안이 여성의 신경증적 감정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역사적으로 히스테리 담론이 여성의 신체에 귀속되어 왔기 때문이다. 신경증적 불안은 레인의 내면에 머무르지 않고, 가정이라는 공간을 조직하고 통제하려는 강박적 실천으로 전환된다.

청결에 대한 집착, 반복적인 감시와 규율은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시도이지만, 오히려 공간 전체를 병리적 긴장 상태로 고정시킨다. 여기서 가정 공간은 레인의 불안이 단순히 표출되는 배경에 머무르지 않는다. 레인이 청결을 통해 불안을 통제하려 할수록 집의 질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며, 사소한 오염이나 무질서도 통제의 실패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따라서 청결을 유지하려는 반복적 행위는 불안을 해소하기보다 새로운 감시와 통제의 필요성을 만들어낸다. 이러한 순환 속에서 집은 이미 존재하는 불안을 드러내는 공간인 동시에, 청결의 규범을 통해 불안을 지속시키고 재생산하는 조건으로 기능한다. 레인의 불안은 따라서 개인의 심리 문제라기보다, 여성에게 규범적 삶과 돌봄의 책임을 과도하게 요구해 온 사회적 질서가 집이라는 공간을 통해 신체화 된 결과로 읽을 수 있다. 초두리는 지리병리학을 “피난처이자 감옥으로서의 집”이라는 모순된 개념 속에서, 공간이 인간의 감정 구조를 병리적으로 변형시키는 과정을 탐구한다고 설명한다(259).

반면 마틸드는 청소노동 자체보다,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감정과 삶의 흔적을 끊임없이 제거하도록 요구하는 강박적 질서를 불편해한다. 그녀가 “나는 청소를 하

는 동안에는 청소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전 농담을 생각하려고 애써요.”(15)라고 말하는 대목은, 청결의 논리로부터 자신의 정동을 분리하려는 시도로 읽을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깨끗한 집』은 여성 인물들이 단순히 청소노동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청결함’을 유지해야 한다는 정동적 압력 속에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관리하고 통제하도록 요구받는 병리적 상태를 드러낸다. 마틸드는 청소가 자신을 우울하게 만든다고 말하지만(15), 청소노동을 계속 수행한다. 중요한 것은 그녀가 청소 행위 자체보다, 청결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감정과 흔적을 끊임없이 제거해야 하는 구조를 견디기 어려워한다는 점이다. 어린 시절 그녀가 “바닥이 더러우면 천정을 보자, 천정은 항상 깨끗하니까”(15)라고 말하는 대목 역시, 더 완벽하게 청소하려는 태도보다 “반드시 깨끗해야 한다”는 규범 자체를 비껴가려는 감각을 드러낸다. 반면 레인이 “내 집을 청소하면 내가 깨끗해지는 기분이 든다”(15)이라고 말하는 순간, 청소는 단순한 위생 행위를 넘어 감정과 자아를 정화하려는 수행적 행위로 기능한다.

즉 그녀에게 농담은 단순한 유희가 아니라, 감정의 흔적과 고통을 지속적으로 지워내도록 요구하는 청결의 논리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정동적 전략으로 기능한다. 극 중 마틸드는 어두운 거실 속에 홀로 앉아 “완벽한 농담”을 떠올리려 애쓰지만, 곧 “거의 떠올릴 뻔했는데, 이제 사라졌어요.”(28)라고 말한다. 이 장면에서 농담은 논리적으로 완결된 언어라기보다 순간적으로 포착되었다가 다시 사라지는 정동의 형태에 가깝다. 또한 마틸드가 부모의 기억을 반복적으로 농담과 연결해 회상한다는 점에서, 그녀에게 농담은 이미 상실된 관계와 감정을 현재 속에 지속시키기 위한 정동적 흔적으로 기능한다.

그녀의 농담, 예컨대 “내가 태어난 곳에서는, 최고의 농담이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다. 사람은 너무 크게 웃다가 죽는다”(12)는 고통, 해학의 접합점이며, 삶과 죽음, 고통과 웃음이 동시에 출렁이는 ‘감각적 리듬’을 구현한다. 여기서 마틸드의 농담은 알-샤마(James Al-Shamma)의 지적대로 단순 유머가 아닌, 주술적 언어이자 샤머니즘적 의식으로 기능한다. 샤마는 빅터 라스킨(Victor Raskin)의 유머 이론을 바탕으로,

농담이 현실과 비현실, 가능과 불가능 사이의 “의미론적 전환”(frame shift)을 발생시킨다고 설명한다(475-79). 그러나 『깨끗한 집』에서 농담의 의미는 단순한 언어적 전환에 머물지 않는다. 마틸드가 말하는 ‘완벽한 농담’은 웃음과 죽음을 하나의 사건으로 결합하면서,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기억과 아나의 죽음을 둘러싼 경험을 연결한다. 따라서 농담은 현실을 벗어나는 초월적 장치라기보다, 마틸드가 상실을 기억하고 타인의 고통에 응답하는 극적 수행으로 이해할 수 있다.

프로이트의 농담 이론은 마틸드가 상실의 경험을 직접적으로 진술하기보다 웃음이라는 우회적 형식을 통해 표현하는 방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마틸드는 어머니의 죽음을 반복해서 회상하면서도 그 기억을 농담과 결합한다. 이때 농담은 상실의 고통을 제거하지 않지만, 직접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언어적 형식으로 작동한다. 그러나 『깨끗한 집』에서 이러한 정동적 수행은 마틸드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룰은 각 여성 인물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불안과 상실, 통제 욕망을 감당하며 병리적 공간 속에서 자신만의 생존 전략을 구축하는 과정을 병렬적으로 제시한다. 버지니아(Virginia)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소속감과 통제 불안, 정체성 결핍을 청소라는 노동에 투사한다. 버지니아에게 청소는 단순한 가사노동이 아니라 불안과 공허를 통제하기 위한 정동적 수행으로 기능한다. 그녀는 “집은 조용해”라고 말하며, “나는 포크와 숟가락, 나이프를 잠자리에 눕힌다”(17)라는 표현을 통해 식기들을 마치 살아 있는 존재처럼 묘사한다. 이러한 과잉된 정돈의 언어는 청결한 공간을 유지하려는 강박이 단순한 위생 관리가 아니라 정서적 안정과 통제 욕망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드러낸다.

특히 아이를 갖지 못한 삶에 대해 이야기하던 버지니아가 갑자기 납치, 강간, 죽음의 이미지들을 쏟아내는 장면은, 완벽하게 정돈된 공간 아래 억압되어 있던 불안과 공포가 얼마나 병리적으로 축적되어 있는지를 보여준다. 또한 룰은 레인과 버지니아가 잠시 “의식 내부에서”(25) 각각 일곱 살과 아홉 살의 아이로 돌아가는 장면을 통해, 두 인물의 통제된 성인 자아 아래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유년기의 불안과 분노가 남아 있음을 암시한다. 이후 두 사람이 다시 “어른들처럼”(25) 자연스럽게 언어로 복귀

하는 모습은, 사회적으로 승인된 질서와 언어가 감정의 균열과 혼란을 봉합하는 수행적 장치로 기능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누군가는 청소를 해야 하고, 그게 바로 나인 것 같아"(Someone's got to clean the house. And I guess it's me, 28)라는 반복적 언어와 거울 앞 자기 응시에서, 자기 존재의 흔적을 확인한다. 아나(Ana)는 말기 암 환자이지만, "넌 청소를 할 게 아니야, 내 옆에 있어줘"(41)라는 대사로, 돌봄의 완벽주의 대신 진실한 감정과 연결, 혼돈을 받아들인다. 마틸드가 "이 집 안에서 질식하고 있어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39)라고 말하는 장면은 그녀의 고통이 개인의 내면에 머무르지 않고 가정 공간과의 관계 속에서 신체적으로 경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앞서 살펴본 아메드의 관계적 정동 개념에 비추어 보면, 이 대사는 마틸드의 불안이 단순한 심리적 상태가 아니라 자신에게 부과된 청소노동과 공간적 규범 속에서 형성되는 경험임을 드러낸다. 이처럼『깨끗한 집』에서 고통은 인물의 내부에 고정된 속성이 아니라 신체와 공간,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구체화된다.

이 작품은 여성들의 반복적 돌봄과 청소 노동이 여성 주체를 고착시키는 구조적 조건과, 그로부터 이탈하려는 정동적, 실천적 균열을 동시에 드러낸다. 룰의 희곡은 계급과 이민, 노동에 대한 사회적 비판과 함께, 여성 인물들이 고통과 상실, 유머와 저항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감정과 관계가 변화하는 순간을 무대화한다. 샤마에 따르면『깨끗한 집』은 룰이 실제 의사 모임에서 들은 일화에서 출발한다. 한 여성이 자신의 브라질 출신 가정부가 청소를 거부한다며 불평했고, 심지어 약물까지 복용시켰음에도 효과가 없었다고 말한 사건은 룰로 하여금 계급과 청소노동의 문제를 사유하게 만들었다(481-85). 이러한 창작 배경은 작품이 단순한 가정극이 아니라, 상류층 여성들이 일상적 돌봄과 청소노동으로부터 분리되는 구조를 드러내는 계급적, 젠더적 공간 비판임을 보여준다. 특히 마틸드의 청소 거부는 단순한 노동 기피가 아니라, 여성의 감정과 신체를 가사노동의 기능적 역할에 종속시키는 질서에 대한 저항으로 읽을 수 있다. 동시에 룰은 정치적 비판에만 머물지 않고, 서로 다른 계급적 위치에 놓인 여성들 사이의 정동적 연결과 돌봄 공동체를 탐색하며, 병리적 가정 공간 안에서도 새로운 관

계 가능성을 모색한다. 결국 『깨끗한 집』은 "정치적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개인적 감정, 공통의 인간성, 여성 연대의 경험으로 이동한다"(483-85).

즉, 네 인물의 문화적, 계급적 차이가 인간적 약점과 유사성, 돌봄과 공감의 가능성으로 수렴되며, 개별적, 구조적 고통은 결국 관계와 연대의 감정적 공동지대로 확장된다. 마틸드의 문화적 소외는 그녀의 이름이 발음되는 방식에서부터 무대 위에 드러난다. 작품에서 마틸드는 자신의 이름을 브라질식으로 발음하지만, 버지니아는 같은 이름을 미국식으로 발음한다(8). 이러한 차이는 단순한 발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중산층 가정 내부에 머무르면서도 그 공간의 언어적, 문화적 규범에 완전히 동화되지 않는 마틸드의 위치를 드러낸다.

이러한 경계적 위치는 글로리아 안잘두아(Gloria Anzaldúa)의 경계지대 개념을 통해 해석할 수 있다. 안잘두아가 설명하는 경계지대는 단순히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는 장소가 아니라, 경계에 놓인 존재가 소속과 배제의 긴장을 경험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마틸드의 언어적 위치를 이해하는 데 유용하다. 또한 작품의 첫 장면에서 마틸드는 포르투갈어로 긴 농담을 들려주는데, 무대지시문은 "관객은 그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녀가 농담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한다(7). 이 장면에서 마틸드는 완전히 번역되거나 해석되지 않는 타자의 언어로 등장한다. 관객은 그녀의 말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지만, 웃음의 리듬과 정동만큼은 감각하게 된다. 따라서 마틸드의 농담은 단순한 희극적 장치가 아니라, 언어적 경계와 문화적 소외 속에서도 타인과 연결되기를 시도하는 정동적 수행으로 기능한다. 실제로 룰은 인터뷰에서 아버지가 죽음 직전까지도 끊임없이 농담을 했으며, 이러한 유머가 가족들로 하여금 고통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게 만들었다고 회상한다(Renner 50). 이처럼 마틸드의 이름과 포르투갈어 농담은 언어적·문화적 경계를 무대 위에 가시화하는 동시에, 완전한 이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웃음과 감각을 통해 타자와 관계를 맺으려는 정동적 수행으로 기능한다. 이러한 언어적 수행은 가정 공간이 단순히 여성들의 노동을 배분하는 장소가 아니라, 누구의 언어와 문화가 정상적인 것으로 인정되는지를 결정하는 공간적 질서이기도 하다는 점을 드러낸다.

3. 병리적 공간의 균열과 불완전한 연대

룰은 『깨끗한 집』에서 언어와 공간의 경계를 통해 여성들 사이의 미세한 정동적 연결을 가시화한다. 특히 아나와 마틸드가 발코니에서 사과를 고르며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영어가 뒤섞인 언어로 대화하는 장면은, 완전한 번역이나 동일성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비규범적 소통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때 외국어의 혼합과 억양의 차이는 단순한 이국적 장치가 아니라, 서로 다른 문화적 위치에 놓인 여성들이 언어적 어긋남 속에서도 감각적 공명과 친밀성을 형성하는 과정을 드러낸다.

특히 아나의 발코니가 레인의 거실을 내려다보고 있다는 설정은, 병리적 가정 공간 바깥에서 새로운 감각과 관계 가능성이 서서히 침투해 들어오는 구조를 형성한다. 또한 마틸드와 아나 사이의 다중언어적 대화는 마틸드를 미국인 인물들로부터 분리시키는 동시에, 언어와 문화적 기억을 매개로 서로의 상실과 고통을 감지하고 공감하게 함으로써 또 다른 라틴계 여성인 아나와 정동적 유대를 형성하게 한다. 이처럼 『깨끗한 집』은 언어적 불완전성과 공간적 경계를 단순한 단절의 조건으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존 질서를 균열시키고 여성들 사이의 새로운 감각적 연대 가능성을 생성하는 수행적 계기로 재구성한다. 이러한 연대의 가능성은 단순한 정서적 화해나 안정된 공동체의 회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룰은 웃음과 죽음, 돌봄과 상실이 공존하는 불안정한 상태 속에서 여성 인물들이 서로의 고통을 감각하고 견뎌내는 과정을 통해, 불완전하지만 지속 가능한 관계의 형식을 탐색한다. 『깨끗한 집』역시 암과 죽음, 불륜과 상실이라는 고통스러운 현실을 단순한 비극으로 재현하지 않는다. 오히려 마틸드의 농담, 부모의 서투른 춤, 그리고 아나가 보여주는 유머와 환대는 병리적 현실 속에서도 인물들이 서로를 완전히 포기하지 않도록 만드는 정동적 완충 장치로 기능한다.

이러한 변화는 언어적 차원에 머물지 않고 레인의 거실 자체가 변형되는 과정에서도 가시화된다. 아나의 소유물이 모두 레인의 거실로 옮겨지고, 물고기와 사과, 가방 밖으로 흘러나온 옷가지들이 한때 정돈과 통제의 공간이었던 집을 채우면서 레인이

유지해 온 '깨끗한 집'의 경계는 물질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한다. 더욱이 이 공간 안으로 병든 아나의 신체와 죽음까지 들어오면서, 집은 불안과 무질서를 제거하는 장소에서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함께 견디는 장소로 변화한다. 이러한 공간적 변화는 작품 후반부에서 '청소'의 의미가 달라지는 과정에서도 드러난다. 극 초반 청소는 레인에게 불안과 감정적 균열을 통제하기 위한 강박적 수행으로 기능했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그것은 단순한 위생 관리나 질서 유지의 차원을 넘어 보다 정동적이고 의례적인 행위로 전환된다.

이러한 변화는 죽음을 질병의 언어로 관리하기를 거부하는 아나의 태도에서 더욱 분명해진다. 아나는 "살아 있는 동안에는 나 자신의 언어를 지키고 싶어요"라고 말한 뒤 이를 다시 스페인어로 반복하고, "나는 질병과 관계를 맺고 싶지 않아요. 죽음과 관계를 맺고 싶어요라고 선언한다. 질병을 통제하고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만드는 의료적 언어를 거부하는 아나의 태도는, 깨끗함과 질서를 위해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던 기존의 청소 논리에도 균열을 가한다. 이에 따라 후반부의 청소는 죽음과 상실을 제거하는 행위가 아니라 그것들과 관계를 맺고 받아들이는 의례적 수행으로 변화한다. 샤마는 룰이 청소 행위에 일종의 영적이고 정화적인 의미를 부여하며, 이를 통해 성스러운 것과 세속적인 것, 삶과 죽음의 경계를 동시에 사유한다고 지적한다(537-40).

실제로 룰은 인터뷰에서 연극 집단 DAH와의 워크숍 경험을 언급하며, 공연 전 무대를 걸레질하는 행위가 공간 자체에 영적 감각을 부여한다고 설명한다(Renner 50). 이러한 관점에서 『깨끗한 집』의 청소는 단순히 더러움을 제거하는 노동이 아니라, 상실과 고통이 스며든 공간을 감각적으로 다시 통과하고 견뎌내기 위한 의례적 수행으로 이해될 수 있다. 특히 극 후반 여성 인물들이 서로의 고통과 결핍을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 채 함께 머무르는 모습은, 청소가 단순히 질서를 유지하는 행위를 넘어 타인의 상처를 받아들이고 공존하는 정동적 실천으로 해석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결국 룰은 『깨끗한 집』에서 청결을 완벽한 질서의 회복으로 제시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녀는 지워지지 않는 얼룩과 상실이 남아 있는 공간 속에서도, 여성들이 웃음과 돌봄, 기억과 감각적 공명을 통해 서로를 완전히 포기하지 않으려는 불완전한 연대의 가능성을

섬세하게 드러낸다. 그러나 여성들 사이의 돌봄과 연대가 형성되는 과정은 기존 관계의 상처와 단절을 동반한다. 특히 아나와 찰스의 관계는 레인의 상실과 정동적 고립을 심화시키며, 새로운 관계의 형성이 언제나 다른 관계의 균열과 맞물려 있음을 보여준다.

아나는 남편의 죽음 이후 "다시는 사랑하지 않겠다"(48)고 결심했지만, 찰스를 만난 이후 자신의 감정을 더 이상 통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고백한다. 흥미로운 점은 두 사람이 자신의 관계를 단순한 욕망이나 불륜이 아니라, "바셰르트"(bashert), 즉 운명적으로 정해진 "영혼의 짝"이라는 형이상학적 언어로 정당화하려 한다는 점이다. 찰스는 "거대한 보이지 않는 것들이 예고 없이 들어오고, 우리는 그것들에게 자리를 내주어야 한다"(49)고 말하며, 사랑을 인간의 통제나 윤리적 선택을 넘어서는 초월적 힘으로 설명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언어가 단순한 자기 합리화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점이다.

오히려 룰은 이 장면을 통해 인간관계가 완벽한 도덕적 질서나 합리적 통제만으로 설명될 수 없음을 드러내며, 삶이 언제나 예측 불가능한 감정과 상실, 우연적 관계들에 의해 흔들린다는 사실을 가시화한다. 그러나 작품은 이러한 초월적 사랑의 담론을 낭만적으로만 제시하지 않는다. 아나와 찰스가 자신들의 관계를 "객관적"이고 "운명적"인 것으로 설명할수록, 레인의 상실감과 정동적 고립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특히 레인이 "축하해"(49)라고 말한 뒤 이어지는 "차가운 침묵"(49)은 인물들 사이의 감정적 균열을 압축적으로 드러내는 무대적 순간이다. 여기서 룰은 관계의 해체를 거대한 비극적 폭발로 재현하기보다, 차가운 침묵과 멈춰진 공기, 그리고 어색한 대화의 흐름 속에서 서서히 감각하게 만든다. 다시 말해 병리적 공간의 균열은 단순히 가시적 파괴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인물들 사이에 공유되던 정동적 리듬이 미세하게 어긋나는 순간들을 통해 드러난다. 이러한 긴장 속에서 마틸드가 "농담을 하나 해 드릴까요?"(49)라고 묻는 장면은 특히 중요하다. 그녀의 농담에 아나만이 웃고 다른 인물들은 웃지 않는다는 점은, 웃음이 단순한 유희가 아니라 특정한 감각과 정동을 공유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만 발생하는 관계적 행위임을 보여준다.

즉 마틸드와 아나는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적 배경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통과 상실을 견디는 방식 속에서 정동적으로 공명하는 인물들로 제시된다. 반면 레인은 여전히 질서와 통제의 논리 안에 머물러 있으며, 이러한 비규범적 감각의 흐름 속으로 완전히 진입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 장면은 『깨끗한 집』이 단순히 사랑과 화해의 공동체를 제시하는 작품이 아니라, 서로 다른 상실과 균열을 지닌 여성들이 완전하지 않은 방식으로 서로의 고통 곁에 머무르려는 과정을 섬세하게 드러내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정동적 공명은 극 후반부로 갈수록 레인이 '청결'과 '더러움'을 바라보는 방식 자체가 변화하는 과정 속에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극 초반 레인에게 청결은 감정적 균열과 불안을 통제하기 위한 수행적 질서였지만, 아나의 죽음이 가까워질수록 그녀는 더 이상 완벽한 질서를 유지할 수 없게 된다. 레인은 노란 향신료, 화분용 흙, 그리고 병으로 쇠약해진 아나의 신체를 마주하면서 점차 '더러움'에 대한 새로운 감각을 경험하게 된다(558-63). 특히 레인이 자신의 집이 "똥 묻은" 소들과 짝 맞지 않는 더러운 양말들로 가득 차기를 바란다고 외치는 장면은(82), 이전까지 그녀가 집착해 온 청결 중심 질서가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기서 더러움은 단순한 오염이나 무질서가 아니라, 그동안 억압되고 제거되어 왔던 감정과 상실, 신체성과 죽음의 흔적을 의미한다. 결국 레인은 자신의 내면적 혼란과 고통이 외부 공간 속에 가시화된 이후에야 비로소 타인의 고통을 감각하고 공감할 수 있게 된다.

4. 나가며

사라 룰의 『깨끗한 집』은 여성의 불안과 상실, 돌봄 노동이 가정 공간의 청결과 정상성을 유지하려는 질서 속에서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드러낸다. 레인의 청결 강박은 불안을 통제하려는 수행적 질서로 작동하지만, 마틸드의 청소 거부와 농담, 아나의 질병과 죽음은 이러한 질서에 균열을 일으킨다. 이 과정에서 집은 불안과 고통을 은폐하는 공간에서 그동안 배제되었던 감정과 신체적 취약성이 드러나는 공간으로 변화한다.

따라서 『깨끗한 집』의 지리병리학적 독해는 여성의 고통을 개인의 심리적 결함으로 환원하지 않고, 젠더화된 노동과 돌봄의 불균형을 재생산하는 공간적 질서의 문제로 확장한다.

이러한 분석의 의의는 여성들의 관계를 돌봄과 연대의 윤리로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돌봄이 가능해지는 공간적 조건 자체를 질문한다는 데 있다. 청결과 정상성의 기준이 흔들리면서 그동안 가려졌던 노동과 고통이 가시화되지만, 이것이 계급적 불평등이나 상실의 완전한 해소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룰이 제시하는 연대는 서로 다른 사회적 위치와 취약성을 지우지 않은 채 타인의 고통 곁에 머무르려는 불완전한 실천이다. 결국 『깨끗한 집』은 치유를 완벽한 질서의 회복이 아니라, 불평등과 상실이 지속되는 조건에서도 타자와의 관계를 새롭게 구성해 나가는 과정으로 무대화한다.

인 용 문 헌

김영덕.「취약성의 윤리와 돌봄: 사라 룰의『깨끗한 집』」.『신영어영문학』, vol. 67, 2017, pp. 23–43.

아메드, 사라.『감정의 문화정치학』. 시우 옮김, 오월의봄, 2023.

프로이트, 지그문트.『정신 병리학의 문제들』. 황보석 옮김, 열린책들, 2003.

최성희, 김지선.「『깨끗한 집』의 희극적 카타르시스 연구」.『한국연극학』, 2017, pp. 119-51.

Al-Shamma, James. *Sarah Ruhl: A Critical Study of the Plays.* McFarland, 2014.

Anzaldúa, Gloria. *Borderlands/La Frontera: The New Mestiza*. 4th ed., Aunt Lute Books, 2012.

Arons, Wendy. "Sarah Ruhl." *Modern American Drama: Playwriting* 2000–2009, edited by Julia Listengarten and Cindy Rosenthal, Bloomsbury Methuen Drama, 2018, pp. 161–83.

Chaudhuri, Una. *Staging Place*: *The Geography of Modern Drama*. U of Michigan P, 1995.

Gilligan, Carol. "Women's Rights and Women's Judgment." *Feminism: Critical Concepts in Literary and Cultural Studies*, edited by Mary Evans, vol. 4, *Feminism and the Politics of Difference*, Routledge, 2001.

Listengarten, Julia, and Cindy Rosenthal. *Modern American Drama*: *Playwriting 2000–2009: Voices, Documents, New Interpretations*. Bloomsbury Methuen Drama, 2018.

Pinter, Harold. *Harold Pinter*: *Plays 1: The Birthday Party, The Room, The Dumb Waiter, A Slight Ache, The Hothouse, A Night Out, The Black and White, The Examination*. Faber & Faber, 2013.

Renner, Pamela. "Spiritual Cleanliness: An Interview with the Playwright." *American Theatre*, vol. 21, no. 9, Nov. 2004, p. 50.

Ruhl, Sarah. *The Clean House.* Samuel French, 2006.

Abstract

Gendered Space and Women's Alienation in Sarah Ruhl's *The Clean House*

HyunJoo Ko
Independent Researcher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cleanliness and domestic space in Sarah Ruhl's *The Clean House*, focusing on how women's anxiety, alienation, and experiences of loss are shaped and transformed within the home. Rather than serving as a neutral backdrop, the house functions as a pathological space in which the desire for cleanliness and order regulates women's emotions and relationships while exposing the unequal distribution of domestic labor, caregiving responsibilities, and class-based inequalities. Lane's obsession with cleanliness and Matilde's refusal to clean, expressed partly through her practice of joke-telling, represent contrasting responses to the spatial order of the household. As the play unfolds, the domestic space organized around cleanliness and control is increasingly disrupted by illness, loss, and death. These disruptions challenge the boundaries between cleanliness and contamination, order and disorder, and reveal how the relationships among the female characters are reconfigured. Drawing on the concepts of geopathology and affect, this study argues that Ruhl presents domestic space not merely as a reflection of psychological distress but as a site where gendered expectations and unequal relations of care contribute to the production and circulation of suffering. Ultimately, *The Clean House* does not offer complete healing or a restoration of domestic order. Instead, it explores the possibility of imperfect solidarity through women's willingness

to remain present with one another's vulnerability, even when illness, grief, and loss cannot be overcome.

Keywords: Sarah Ruhl, geopathology, care, *The Clean House*, domestic space, affect

논문접수일: 2026.9.28
심사완료일: 2026.9.30
게재확정일: 2026.10.08

이름: 고현주
소속: 독립연구자
이메일: hyunju7631@naver.com